어반자카파 1년여 만에 새 앨범 '스틸' 발표

5년 동안 함께 한 소속사 떠나 처음 발매
발라드 · 미디엄 템포 · 정통 R&B 까지 수록

새벽의 센치한 감성을 저격하는 그룹 '어반자카파(URBAN ZAKAPA)'가 27일 0시 1년 여 만에 새 앨범 '스틸(STILL)'을 발표했다.

높은 음역대를 넘나드는 부드러운 목소리의 권순일과 파워풀한 보컬 조현아, 그루브한 저음이 매력적인 박용인이 모인 혼성 3인조 R&B 싱어송라이터 그룹이다.

2009년 '커피를 마시고'로 데뷔한 후 '봄을 그리다' '니가 싫어' '그날에 우리' '저스트 더 투 오브 어스(Just the two of us)' '겟(Get)' '뷰티풀 데이(Beautiful day)' 등 히트곡을 내 놓으며 20대의 감성을 대표하는 뮤지션으로 자리 잡았다.

"밤 12시에 나오니까, 새벽 감성이 자극돼서 많은 분이 들어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잠깐 차트 1위를 찍고 내려오는 것 보다, 수록곡이 전부 차트 안에 들어가는 게 훨씬 행복하고 롱런하는 게 더 좋죠."(권순일)

타이틀 곡 '널 사랑하지 않아'는 새벽의 쓸쓸한 기분을 자극하기에 최적화된 곡이다. 멤버 권순일이 만든 잔인한 이별 노래다. 이별을 앞두고 사랑하니까 놓아준다는 흔한 거짓말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다고, 미안하다는 말도 하고 싶지 않다는 솔직하고 현실적인 이별을 담았다.

"비겁하게 속이고 변명하지 않고, 헤어질 때는 진심을 담아서 사랑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느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가사를 중점적으로 들으시면 더 와 닿으실 거예요."(권순일)

어쿠스틱 기타 연주로 시작해 세 멤버의 보컬로 이어지다가 악기를 하나씩 쌓아 올려 감정의 극대화로 이어지는 곡의 흐름으로 어반자카파 특유의 발라드 색을 표현했다.

'스틸'은 5년 동안 함께 한 플럭서스뮤직에서 메이크어스엔터테인먼트로 소속사를 옮긴 뒤 처음 발매하는 앨범이다. 여러 상황이 바뀌었지만 '어반자카파의 음악은 여전하다'는 의미에서 앨범 제목도 '스틸'로 정했다

"여전히, 아직도 저희만의 색을 고수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스틸'이라고 지었습니다. 발라드, 미디엄 템포, 정통 R&B까지 수록했으니 기호에 맞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권순일)

앨범에는 연애 초기 서로가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궁금해 하는 마음을 담은 경쾌한 곡 '궁금해', 권태기까지 보내고 상대의 모든 것이 좋아지는 안정된 마음을 표현한 미디엄 템포의 R&B '다 좋아', 1990년대 정통 팝 R&B 스타일에 가수 존박이 영어로 가사를 쓴 '니어니스 이스 투 러브(Nearness is to love)', 마지막 트랙에 실려 앨범에 여운을 남기는 '아직도 나를 사랑한다면' 등 모두 다섯 곡이 실렸다.

세 멤버가 "쉬지 않고 한 연애"(권순일)와 "친구들과의 고민 상담"(조현아), "연애뿐 아니라 여행 등 다양한 경험"(박용인)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쓴 곡이다. 늘 그랬던 것처럼 각자 완성된 한 곡을 만들어서 다 같이 들어보고 의견을 모아 수록곡을 정했다. 10년 넘게 함께 음악을 하면서 다진 팀워크이자 작업 방식이다.

"10년도 넘은 친구사이이기 때문에 양보할 때는 양보하고, 치켜세워 줄 때는 확실히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박용인), "너무 오래 같이 음악을 하다보니까 이제는 충돌이 전혀 안 생겨요."(권순일), "아닌 건 아니라고 바로 확실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큰 충돌은 없는 것 같아요."(조현아)

다음달 18~19일에는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앨범 발매를 기념하는 콘서트를 연다. 출중한 라이브 실력을 바탕으로 한 27여 곡의 충실한 무대와 함께 재밌는 패러디 영상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후에는 페스티벌 무대를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1년 만에 다시 찾아뵙는 거라서 사실 긴장이 돼요. 오랜만에 왔다고 따뜻하게 맞아주셨으면 합니다. 차트 순위보다 어반자카파다운 노래, 실망시키지 않을 앨범을 들고 왔다고 한마디 써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권순일)

/이성주기자

어반자카파(URBAN ZAKAPA)는 부드러운 목소리의 권순일과 파워풀한 보컬 조현아, 그루브한 저음이 매력적인 박용인이 모인 혼성 3인조 R&B 싱어송라이터 그룹이다.

체육진흥공단 '사랑나눔 기금 장학생 지원 사업'
전북 양궁 최혜미 · 근대 5종 강창훈 학생 선정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한국스포츠개발원에서 지원하는 '사랑나눔 기금 장학생 지원 사업'에 전북의 꿈나무 선수 2명이 선정됐다.

선정된 꿈나무 선수는 양궁의 최혜미(오수고)(사진)학생과 근대5종 강창훈(전북체육중)(사진)학생이다.

양궁의 최혜미 선수는 지난해 전국남여종별양궁선수권대회에서 여고부 단체전 3위에 오른 바 있고, 근대5종 강창훈 선수는 제17회 한국학생근대5종대회에서 단체전 1위와 소년체전 3위에 오른 바 있는 전도유망한 꿈나무들이다.

이번 장학생 선발사업에 선정된 선수들은 훈련장학금 50만원씩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2016년 지역스포츠과학센터 공모에 선정 된 전북체육회 스포츠과학센터는 앞으로 지역 우수선수들에게 장학금뿐만 아니라 체력강화, 경기기술 분석, 심리지원, 현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방편으로 노력해 최선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을 할 예정이다.

/김민근기자

정준영 밴드 새 앨범 '드럭 레스토랑' 공개

'드럭 레스토랑(Drug Restaurant)'으로 팀 이름을 바꾼 '정준영 밴드'가 27일 새 앨범 '드럭 레스토랑'을 공개했다.

보컬 정준영과 기타리스트 정대만이 함께 만든 타이틀 곡 '미스테이크(Mistake)'는 자유를 동경하는 청춘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노래다.

이와 함께 '섹시 밤(Sexy Bomb)' '뭣?!(What?!)' '웬 더 머니즈 백(When the Money's Back)' 등 멤버들이 작사·작곡에 참여한 다섯 곡이 실렸다. 특히 '웬 더 머니즈 백'은 CD로만 공개하는 신곡이다.

한편 이들은 최근 프론트 맨 중심의 팀이 아닌 밴드 전체를 위한 결단으로 팀명을 바꿨다. 약국의 약보다 더 쾌적한 처방을 하겠다는 의미로 자신의 음악이 사회에 찌든 사람을 위한 치유와 탈출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이성주기자

SBS TV 드라마 '딴따라' MBC '운로' 맹추격

지상파 수·목요일 밤 10시 시간대가 전쟁터다. 화제성 등을 고려했을 때 MBC TV '운빨로맨스'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했지만, 차근히 올라온 SBS TV '딴따라'가 의외의 복병이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6일 방송된 '운빨로맨스'(극본 최윤교·연출 김경희) 2화 시청률은 전국 기준 8.7%를 기록했다. 10.3%로 압도적인 시청률을 보였던 첫 화에 비해 1.6%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딴따라'(극본 유영아·연출 홍성창, 이광영)는 8.6%로 바짝 추격하고 있다. 수도권 기준 시청률은 12.1%로 '운빨로맨스'의 9.9%보다 2.2%포인트 더 높다.

지난 4월20일 6.2%로 시작해 회를 거듭할수록 꾸준한 시청률 상승을 보이고 있다.

한편 같은 시간대 방송되는 KBS 2TV '마스터 국수의 신'은 8.0%를 기록했다.

/이성주기자

ESPN "손흥민 토트넘에서의 미래 불확실" 이적 점쳐

"오는 8월 리우올림픽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예측도

손흥민(24·토트넘)의 이적을 점치는 외신 보도가 다시 나왔다.

미국 스포츠전문매체 ESPN은 27일(한국시간) "손흥민과 나빌 벤탈렙 등은 토트넘에서의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토트넘은 지난 시즌 최종전에서 뉴캐슬에 1-5로 치욕적인 패배를 당했다"며 "이에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자신의 선수단에 물음표를 제시했고, 오는 여름 스쿼드 보강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선수단 보강은 몇몇 선수들을 팔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토트넘은 최근 5년간 프리미어리그에서 이적으로 이윤을 남긴 유일한 팀이다.

여름 이적시장에서 일부 선수들을 팔아 새로운 선수를 영입할 것으로 보인다.

ESPN은 올 여름 토트넘을 떠날 수도 있는 다섯 선수를 꼽았다.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린 것이 손흥민이다.

이 매체는 "지난 여름 레버쿠젠에서 2200만 파운드에 영입된 손흥민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손흥민은 지난해 9월 입은 발 부상 등으로 인해 완전한 몸상태를 갖추지 못했다. 실제 프리미어리그 28경기에 나섰지만 풀타임은 단 한 차례 뿐이었다"고 분석했다.

오는 8월 열리는 2016 리우올림픽이 손흥민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이 매체는 "이번 여름에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아보이지만 손흥민은 올림픽 출전을 원하고 있다"며 "만약 한국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다면 손흥민은 2년간의 군 복무를 면제받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올림픽 출전으로 손흥민은 토트넘의 프리시즌과 내년 시즌 초반 일정에 참가하지 못한다. 이 부분이 포체티노 감독 체제에 녹아들고 싶은 그의 희망에는 결코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흥민의 이적설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포체티노 감독은 합류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손흥민을 팔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지난 23일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열린 대표팀 훈련에 앞서 "특별히 걱정하실 부분은 없을 것 같다"며 이적설을 일축했다.

한편, ESPN은 손흥민과 더불어 벤탈렙, 디안드레 예들린, 라이언 메이슨, 알렉스 프리치드 등의 미래가 불안정하다고 내다봤다.

/김민근기자